

# 고려 전기 ‘순화(淳化)’명 청자 제기류의 현황과 의의

장남원

## I. 머리말

張南原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한국도자사

고려 전기 도자 자료 가운데에는 일련의 ‘순화(淳化)’명(銘) 청자들이 남아 있다. 완형의 전세품으로는 개성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993)가 대표적이고,<sup>1</sup> 그 외에 황해남도 배천군(伯川郡) 원산리(圓山里) 2호 묘지 4차 가마 발굴에서 출토된 파편 자료들이 있다. 황해도 배천 원산리 묘지의 발굴이 이루지기 전까지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에 대한 편년 자료와 고고학적 발굴 자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백자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담록색을 띤 황백색조가 강하고 굽 안의 유약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의 질이 일반적인 청자 태질(胎質)과 다르다는 것과 10세기 말 경에는 고려백자 요업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당시까지의 청자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 본 고는 2020년 2월 University of Hawaii의 Center for Korean Studies Asian Research Foundation<sup>o</sup> 개최한 “Koryō: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콜로키움의 발표문을 전면 개고한 것임.

\*\* 필자의 최근 논저: 「중국 가요(哥窯) 자기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시각화」, 『미술사와 시각문화』28, 2021; 공저, 『A Companion to Korean Art』, Wiley-Blackwell, 2020.

1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전(傳) 개성 출토로 알려져 있으며, 1957년에 이화여자대학에 소장, 1963년 보물 제237호로 지정된 후, 2019년 국보 제326호로 승격되었다.

있었다.<sup>2</sup> 또 이 항아리를 청자라기보다 선구적인 백자라고 보거나<sup>3</sup>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동관요(銅官窯)의 영향을 받은 황유도(黃釉陶)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sup>4</sup> 이후 경기 일원의 고려 전기 가마터들에 대한 지표조사가 추가되면서 개경과 인접한 원흥리(元興里)나 부곡리(釜谷里) 등에서도 고려 초부터 청자가 제작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순화명 항아리는 청자로 보아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sup>5</sup> 이처럼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의 속성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으나 경기도 용인 서리(西里)에서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가 함께 발굴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백자와 청자의 선후관계와 제작양상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sup>6</sup>

그런데 1987년부터 1990년에 걸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청자요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와 거의 같은 유형의 명문이 적힌 제기류 20여편이 수습되었다. 이에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가 이 파편들과 같은 원산리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고려도자 발달사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인용되어 왔다.<sup>7</sup> 고려 초기 청자 연구의 기준으로 활용되었음은 물론이고 용도가 명확한 유물로서 고려시대 도자 제기 관련 연구의 한 기준이 되어 왔다.<sup>8</sup> 그러나 북한사회과학원의 발굴자료는 국내에 실물로 공개된 바 없어 간단한 사례로서 소개되었을 뿐 성격과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 왕도 개경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중 황해남도의 원산리 요지 외에도 경기도의 원당 원흥리 요지, 고양 부곡리 요지, 시흥 방산동(芳山洞) 요지와 용인 서리 요지 등이 고려 전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개성 만월대 유적이나 유력한 사지(寺址) 등에서는 10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파편들 가운데 유색과 질이 비슷한 유물들이 알려진 바 있고, 특히 이들 가운데 명문의 종류는 다르지만 궁궐의 관청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sup>9</sup> 따라서 고려 전기부터 왕궁이나 태묘에서 국내산

2 崔淳雨,「高麗時代의 陶磁」,『韓國美術全集: 高麗陶磁』9(同和出版公司, 1988), p.5.

3 鄭良謨,「우리나라도자기」,『湖林美術館所藏品選集』1(湖林美術館, 1984), p.205.

4 三上次男,「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朝鮮學報』99,100合輯(1981), pp.225-254.

5 尹龍二,「고려도자의 변천」,『潤松文化: 陶磁』4(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p.66.

6 金載悅「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美術史學研究』3:41 (1988), pp.3-41.

7 李鍾攷,「韓國 初期青磁의 形成과 傳播」,『美術史學研究』240 (2003), pp.51-75.

8 김효진,「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美術史學研究』282 (2014), pp.5-33; 張成旭,「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崇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 박지영,「고려궁성(만월대) 출토 청자로 본 건물지군의 성격」,『한국사학보』79 (2020), pp.35-63; 박지영,

자기를 목적에 따라 사용했고, 명문으로 보아 그 요업의 주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비롯한 일련의 순화명 청자들은 비색의 정교한 고려 전성기 청자들과 비교하면 외관이 미숙하지만, 고려 전기 청자의 제작기술 현황과 요업의 주체, 사용자 등 10세기 후반 고려청자 개시 시기의 정황을 보여주는 1차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sup>10</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제작기술 및 양식의 관점에서 집중해왔던 고려 전기 청자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10세기 말 개경 인근 가마에서 왜 청자 제기가 제작되었는지, 고려 전기 예제의 성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와 맥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II. 순화명 청자의 현황과 제작지

### 1. 순화명 청자의 현황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전(傳) 개성 출토품으로 전하는데, 일제강점기 동양제사(東洋製絲) 사장을 지냈던 저명한 도자기 수집가 이토마키오(伊藤慎雄)의 소장이었다가 그의 친구이자 인천에서 정미소를 운영했던 스즈시게(鈴茂)에게 판매되었고, 골동상이었던 종로사의 석진수(石鎮壽)에게 인수되었다가 이화여대가 구입 소장한 것이다.<sup>11</sup> 굽 안바닥에 “순화4년계사태묘제일실향기장최길회조(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음각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항아리는 고려 태묘의 제1실에서 제기의 제작을 담당했던 향기장(享器匠) 최길회(崔吉會)가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제작과정에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순화 4년은 고려 성종(成宗, 재위981~997) 12년(993)에 해당하며, 명문이 있는 완형의 고려 청자로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이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 태묘(太廟)는 성종8년(989) 4월 15일에 착공되어 성종11년(992) 12월 1일에 준공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호 청자 고찰」, 『문화재』52 (2019), pp.122-141; 장남원, 「개성 고려궁성지 출토 도자기」,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p.419-429.

10 순화 4년명 항아리에 대한 과학적 논고로는 이선명, 권오영, 박종서, 한우림, 「국보 제326호 청자 '순화4년' 명 항아리의 과학적 보존치료」, 『보존과학회지』35:5 (2019), pp.453-369.

11 고제희, 『우리 문화재속 숨은 이야기』(문예마당, 2007), pp.140-144.

되었다고 한다.<sup>12</sup> 따라서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태묘가 준공된 이듬해에 제사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항아리는 높이 35.6cm로 입 부분은 폭이 넓고 직립했으며, 어깨에서 조금씩 둥그스름하게 벌어져 몸통을 이루었다. 문양은 없고 유약은 담녹색조의 황갈색으로 발색되었는데 유층이 매우 얕고 기면 일부에는 유약의 풍진 자국이 남아 있다. 그리고 굽 접지면에는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도1



한편, 그 밖의 순화명 청자들은 모두 황해도 배천 원산리요지 출토품이다. 1989~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리에서는 1기(基)의 도기 가마와 3기의 청자 가마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폐요(廢窯)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2호 가마 바닥 최상층에서 25편 정도의 두형(豆形) 제기편이 수습되었고 그 중에 '순화3년(淳化三年)'(992)과 '순화4년(淳化四年)'(993)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 파편들이 10여 점, 태묘의 묘실로 파악되는 명문 약 6점, 향기장이라는 직명이 새겨진 것 약 11점, 장인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 약 14점 가량 알려지면서 제작시기와 용도, 요장의 조업시기 추정을 가능케 해 주었다. 즉, 발굴 결과로 보면 원산리 2호 가마는 이를 태묘용 제기를 제작한 직후 폐요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가마의 운영 하한을 10세기 말 정도로 본다. 발견된 두형 청자 제기편들 역시 이화여대 소장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음각 명문은 연호(年號), 간지(干支), 묘호(廟號), 직명(職名), 인명(人名)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형 청자는 위쪽의 오목한 원반형(圓盤形) 접시 부분과 기다란 원주형(圓柱形) 받침, 그리고 원반을 엎어 놓은 형태의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문은 굽 안바닥 가장자리에 남아 있는데, 음각으로 제작년도, 진설묘실, 담당 직명과 제작자(또는 제작을 관리 감독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다. 명문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1점이지만 부분만 남아 있는 파편들도 유사한 구조와 내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명문내용과 구조가 동일하고, 청자의 유색(釉色)과 질(質)도

- 1  
<청자 순화4년명 호>  
993  
높이 35.2cm  
입지름 20cm  
밀지름 16.8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2 『高麗史』3, 世家3, 成宗11(992), 十二月, “大廟成……丙寅, 教曰, 王者化成天下, 學校爲先, 祖述堯舜之風, 肅修周孔之道, 設邦國憲章之制……是月, 親祀于大廟”



2  
 〈청자 순화3년명 두형제기〉  
 992  
 배천 원산리 가마터 출토

매우 흡사하다.도2

배천 원산리 가마터 출토 청자의 명문으로는 ‘순화삼년임진태묘제사실향기장왕공탁조(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任造’, ‘순화삼년태묘□삼실향기장심방□(淳化三年太廟□三室享器匠沈邦□)’, ‘□□삼년임진태묘□…□(□□三年壬辰太廟□…□)’, ‘□…□실향기장왕공탁조(□…□室享器匠王公任造’, ‘□…□기장왕공□□(□…□器匠王公□□)’, ‘□…□왕공탁조(□…□王公任造’, ‘□…□탁조(□…□任造’, ‘□…□장심기조(□…□匠沈祁造’, ‘순화□…□장최금환조(淳化□…□匠崔金桓造’, ‘□…□장최금□조(□…□匠崔金□造’, ‘□…□기장이□…□(□…□器匠李□…□)’, ‘순화사년계사□…□(淳化四年癸巳□…□)’, ‘□화사년□…□(□化四年□…□)’, ‘□…□향기□…□(□…□享器□…□)’등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순화명 도자기들이 출토 되었는지 그 정확한 숫자와 기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발굴을 담당했던 김영진의 보고 내용과 북한 현지에서 유물을 실견했던 남수옹의 논고에 소개된 순화명 자료, 전세품 등을 통합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다.<sup>13</sup>표1

표1 순화명 청자 제기 명문 일람

연번	연도	사용처	직명	제작자	출토지/소장처
1	순화3년(淳化三年) 임진(壬辰)(992)	태묘제4실 (太廟第四室)	향기장(享器匠)	왕공탁조(王公任造)	배천 원산리
2	□□3년(□□三年) 임진(壬辰)(992)	태묘□□□ (太廟□□□)	□□□	□□□□□	배천 원산리
3	□□□□ □□(미상)	□□□□□	□기장(□器匠)	왕공탁조(王公任造)	배천 원산리
4	□□□□ □□(미상)	□□□□□	□기장(□器匠)	왕공□□(王公□□)	배천 원산리
5	□□□□ □□(미상)	□□□□□	□□□	왕공탁조(王公任造)	배천 원산리
6	□□□□ □□(미상)	□□□□□실 (□□□□□室)	향기장(享器匠)	왕공탁조(王公任造)	배천 원산리
7	□□□□ □□(미상)	□□□□□	□□□	□□탁조(□□任造)	배천 원산리
8	순화3년(淳化三年) □□(992)	태묘□3실 (太廟□三室)	향기장(享器匠)	심방□(沈邦□)	배천 원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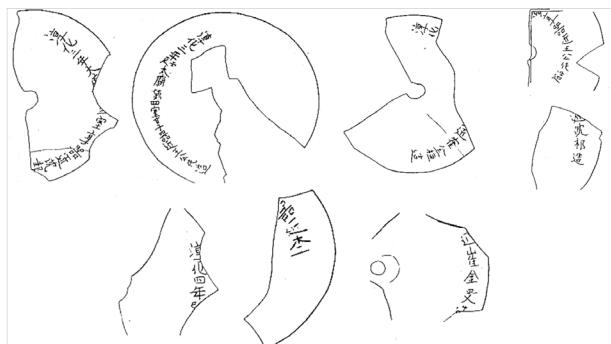
13 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의 靑磁資料」, 『東洋陶磁』22 (東京: 東洋陶磁學會, 1992~94), pp.105-120; 김영진,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2002), pp.150-169에 소개된 정보와 제기 명문 소개 내용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9	순화3년(淳化三年) 임진(壬辰) (992)	태묘□□□ (太廟□□□)	□기장(□器匠)	이미거조(李味巨造)	배천 원산리
10	□□□□ □□(미상)	□□□□□	□□장(□□匠)	이미거조(李味巨造)	배천 원산리
11	순화4년(淳化四年) 계사(癸巳) (993)	□□□□□	□□□	□□□□	배천 원산리
12	순화4년(淳化四年) 계사(癸巳) (993)	태묘제□□ (太廟第□□)	□□□	□□□□	배천 원산리
13	□화4년(□化四年) □사(□巳) (993)	□□□□□	□□□	□□□□	배천 원산리
14	순화4년(淳化四年) □□ (993)	□□□□□	□□□	□□□□	배천 원산리
15	□화4년(□化四年) □□ (993)	□□□□□	□□□	□□□□	배천 원산리
16	□□□□ □□(미상)	□□□□□	향기□(享器□)	□□□□	배천 원산리
17	□□□□ □□(미상)	□□□□□	□□장(□□匠)	심방□(沈邦□)	배천 원산리
18	□□□□ □□(미상)	□□□□□	□기장(□器匠)	이□□□(李□□□)	배천 원산리
19	순화□□(淳化□□) □□(미상)	□□□□□	□□장(□□匠)	최금환조(崔金桓造)	배천 원산리
20	□□□□ □□(미상)	□□□□□	□□장(□□匠)	최금□조(崔金□造)	배천 원산리
21	□□□□ □□(미상)	□□□□□	향기장(享器匠)	최금만조(崔金曼造)	배천 원산리
22	□□□□ □□(미상)	□□□□□	□□□	□□□조(□□□造)	배천 원산리
23	순화4년(淳化四年) 계사(癸巳) (993)	태묘제1실 (太廟第一室)	향기장(享器匠)	최길희조(崔吉會造)	이화여자대학교

명문들은 대부분 굽 바닥면에 단정한 해서체로 음각되었는데,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 즉 시계 바늘 방향으로 음각되어 있었다. 다만 이 가운데 ‘순화3년임진태묘제4실향기장왕공탁조(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任造)’의 경우만 왼쪽 위에서 아래로 음각되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의 경우와 같았다. 명문에는 왕공탁(王公任), 심규(沈祁), 심기(沈祁), 이미거(李味巨), 최금환(崔金桓), 최금만(崔金曼), 최길희 등 약 7명 내외의 ‘향기장’ 이름이 등장하여 주목된다.<sup>14</sup>

‘순화’는 송(宋) 태종(太宗, 976~997)의 연호로 990년부터 994년에 해당한다.<sup>14</sup> 고려는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10~12세기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특정 국가의 연호를 차용하거나 불용했던 것으로

3  
배천 원산리 요지출토  
순화명 청자류의 명문



14 홍영의, 「고려시대 금속제 기물 및 기와의 ‘연호’명 검토- 대중국 ‘연호’의 시행과 고려의 다원적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50 (2017), pp.225~281; 한정수, 「10~12세기 초 국제 질서와 고려의 年號紀年」, 『한국중세사연구』49 (2017), pp.109~144; 韓政洙, 「고려 초의 국제관계와 年號紀年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208 (2010), pp.203~233; 한정수, 「고려, 송, 거란 관계의 정립 및 변화에 따른 紀年の 양상- 광종~현종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41 (2012), pp.103~133.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려는 993년 10월 요나라의 1차 침공 이후 994년 2월부터 요나라 연호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후 요나라 연호가 고려의 비문과 묘지명, 전적과 기문, 탑상과 석조, 각종 공예품과 와편 등 다양한 문물에 나타난다.<sup>15</sup> 그래서인지 순화 연간은 976년부터 997년까지이나 현전하는 태묘용 순화명 청자들에 나타난 간지의 하한은 993년이다. 그러나 성종은 994년에 자신의 부왕인 대종(戴宗, ?~969)의 묘실을 추가했고, 이 때 각 실에 공신(功臣)을 선정하여 함께 배향하기 시작했으므로<sup>16</sup> 994년에도 새로 태묘용 제기를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 2. 제작지와 제작특징



4  
배천 원산리 4호 가마  
북한사회과학원 발굴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요지에서 수습된 순화명 청자들은 1992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렸던 동양도자학회(東洋陶磁學會)에서는 원산리 유적의 가마터와 출토품을 실견한 오다 후지오(小田富士雄)가 긴급 보고 형식으로 짧은 소개를 했고, 이후 미나미 히데오(南秀雄)가 북한에 직접 가서 원산리 유적에 대한 발표를 하여 그 내용을 논고로 작성하면서 알려졌다.<sup>17</sup> 발굴로 확인된 1기의 도기 가마는 전형적인 지하굴식 진흙가마(土築窯)였으며 2~4호로 명명된 3기의 청자 가마는 벽돌로 축조된 중국식 벽돌가마(磚築窯)였다. 이 가운데 가마의 전모가 드러난 2호 가마는 당초에 길이 38.9m의 대형으로 축요(築窯)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길이 22.4m로 짧아졌고, 가마폭도 당초 1.9m에서 0.8~1.0m로 좁아져, 여러 번에 걸쳐 보축(補築)된 것이 확인되었다.<sup>18</sup> 길이와 폭을 줄이고 좁혀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가마를

사용했던 흔적은 3호와 4호 가마의 양상도 유사했다고 보고되어 있다.<sup>19</sup> 따라서 원산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편년자료의 출토상황으로 2호 요지는 하한(下限)이 10세기

15 엄기표, 「고려시대 遼 연호 借用 文物의 현황과 특징」, 『불교미술사학』28 (2019), pp.707-756.

16 『高麗史』3, 世家3, 成宗13; 『高麗史』60, 志第14, 禮2, 吉禮大祀2, “禘祫功臣配享於庭….”

17 홍영의, 「개성 일대의 고려 유적 발굴조사 현황과 연구 성과」, 『서울학연구』83 (2021), pp.123-169; 박정민, 「고려 초기청자(初期青瓷) 연구에 있어서 북한자료의 활용과 전망」, 『인문과학연구논총』38 (2017), pp.227-256; 南秀雄, 앞의 책, pp.105-120.

18 김영진, 앞의 책(200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12 (평양, 1992), pp.306-321;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 발굴간략보고」, 『조선고고 연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말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굴단은 3, 4호 요지의 경우도 출토 유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여 가마들 간에 약간의 시기적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유적의 하한이 11세기 전반보다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993년부터 거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고려 성종은 서경까지 방어를 위해 출정하였다. 결국 2차 침공 때인 1011년(현종3) 1월 개경이 침공 당하게 되었으므로 황해도 배천 일대에서 대형 요장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19</sup> 나아가 992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조운제(漕運制) 역시 기존의 개경 인근에서 영위되던 대규모 수공업 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본다. 즉 고려 초 개경 인근 가마터의 자기 생산만으로 부족한 공급을 공물로 거두게 되면서 자기 제작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고려의 전국적 지배체계 확립과 조세제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10세기 말경부터 11세기 초에 이르면 조운로에 인접한 서남해안 일대에서 도자기 생산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sup>20</sup>

순화명 청자가 발굴된 황해도 배천 원산리 요지에서는 청자편들 외에 갑발(匣鉢), 점권(墊圈, 등근 고리형 받침) 등 제작과 연관된 다양한 도구와 부속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는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경기도 용인시 서리 가마터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및 요도구들과도 매우 흡사한 것들이었다. 용인시 서리 요지는 원산리 유적이 발굴되기 바로 전인 1983, 1987, 1988년 등 3차례에 걸쳐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이 발굴 조사했다. 서리 요지에서는 총 연장 약 83m의 진흙가마 아래에서 길이 약 40m로 규모로 추정되는 벽돌가마가 운영되었던 층위가 발견되었다. 진흙가마 퇴적에서는 고려 초기청자의 일반적인 특징인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출토되었고 그 하부에 있었던 벽돌가마 시기 퇴적에서는 접지면의 폭이 좁은 이른바 옥환저(玉環底) 완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순화명 자료가 출토된 원산리의 가마유구와 제작품은 중서부지역의 초기청자, 특히 전축요의 운영시기와 가마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순화명 청자 파편들의 발견은 배천 원산리 원산리의 가마 운영의 하한과 더불어 벽돌가마 시설에서 비슷한 제작했던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 요지 I, II기층의 운영시기도 결국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 경으로 추정하는 기준이 되었다.<sup>21</sup>

19 안주섭,『고려거란전쟁』(경인문화사, 2003), pp.120-147.

20 장남원,「漕運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引揚 고려도자를 중심으로」,『미술사연구』22 (2008), pp.169-198.

21 李喜寬,「韓國 初期青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지방사와 지방문화』14 (2011), pp.7-51; 이종민, 앞의 논문, 주7 참조.

방산동 출토 제기류는 주로 청자 Ⅱ유형(최상층)에서 나타나며 보궤(簋簋)로 추정되는 대형기 저부편외에 두형기(豆形器) 저부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일반 음식기로 볼 수 없는 대형의 빙(鉢)이나 대반(大盤) 등 의례용기들이 발견되었다.<sup>22</sup> 방산동 출토품과 유사한 제기들은 용인 서리의 중덕(中德) 및 상반(上盤) 요지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용인 서리 중덕마을 요지에서는 Ⅲ기층 이후 층위에서 내방외원(內方外圓)의 보(簋)와 외방내원(外方內圓)의 궤(簋), 거북장식 뚜껑 등 103점이 가량 발견되었다. 그 외에 대형의 항아리(壺)와 두형기의 저부편으로 추정되는 잔편들도 출토되었다.<sup>23</sup> 용인 서리 상반 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서는 출간되지 않았지만 보궤형 제기가 뚜껑과 함께 여러 점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세한 분석을 통해 약 197점의 제기가 확인 분석되었고, 그 중 북송대 섭승의(攝崇義)가 960년에 완성했다고 알려진 『삼례도(三禮圖)』형 제기도 99점으로 파악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서로 인접해있으나 용인 상반 요지에서는 중덕 요지에서 출토되지 않았던 기종도 확인되며, 출토 제기들은 일상 기명에 비해 규격과 형태에 있어 제한적인 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4</sup>

한편, 여주 중암리 요지에서도 두형기의 저부로 추정되는 파편 등이 동반 출토되고 있어 경기 일원에서는 전축요나 전축요계의 전통을 가진 요장들에서 대형의 제기들이 함께 제작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원산리와 방산동의 경우 전축요 단계에서 제기가 생산되었던 것이고 용인 서리와 여주 중암리에서는 당초 전축요였다가 토축요식 요업으로 전환된 이후의 퇴적층에서 제기류가 수습된 것이다. 이는 993년 이후 거란 침입으로 태묘의 소실과 재수축에 따른 새로운 기물의 수요증가 등 일련의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부지방에서 전축요 시설이 거의 사라지고 요업의 중심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옮겨지는 시기의 남부지방 요지들에서는 개경 인근 전축요계 요장에서 생산하던 것과 유사한 제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았다. 남부지방 강진 등이 고려 요업의 중심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방산동이나 원산리에서 제작되었던 국가용 대형 제기는 전축요의 쇠락과 함께 용인이나 여주지역 등 개경에서 멀지 않은 인근의 생산지로 이관되어 일정기간 제작을 이어가면서 지방제사 등을 위해 제기를

22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이천: 해강도자미술관, 2001).

23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1 (1987);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2 (2003).

24 김효진, 앞의 논문, 주8 참조.

제작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5</sup> 특히 용인 상반 등지에서는 11세기까지도 배천 원산리 등지에서 제작되던 『삼례도』 유형 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는데, 본래 목기나 죽기 등으로 제작되었던 제기들도 대체로 자기로 만들었으며, 실물에서 실물로 전승되기 보다는 도안을 통해 그 형태와 특징이 이어졌다고 해석되기도 한다.<sup>26</sup>

### III. 태묘의 건립과 순화명 제기

#### 1. 성종과 태묘의 건립

고려의 건국 이후 수도 개경에 국가 의례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왕조의 이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성종대 이전에는 왕실의 조상에 대한 의례를 주로 능소(陵所)에 배일하거나 진전사원(眞殿寺院)을 지어 불교식으로 재(齋)를 지내는 방식으로 시행했다.<sup>27</sup> 성종대에 이르면 재위기간 동안 고려 초기의 여러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화를 공고히 했다.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체제를 정비했는데, 특히 유교적 관료제도와 통치 이념의 정립을 통해 정치 사회구조를 재편하려 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최승로(崔承老, 927~989)의 시무(時務) 28조를 수용하여 유학자들을 중용함으로써 불교로 인한 폐단을 비판하고 개혁한 것이다. 행정조직으로서 12목(牧)을 설치하고 3성 6부제를 실시했으니 역시 그 일환이었다. 이 때 유교식 통치 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핵심은 예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예서와 제기도 등을 받아들여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본다.

이 때 태묘의 건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고려 태묘의 위치는 분명치 않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을 보면 조묘(朝廟, 태묘을 말함)가 국동문(國東門) 밖에 있었다고 하고<sup>28</sup> 혹은 고려 황도의 나성(羅城) 안쪽이나 혹은 나성 밖 부흥산기슭 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sup>29</sup> 한편 왕도를 정비하면서 고려는 지속적으로 송에 예서(禮書)

25 장남원,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고문화』63 (2004), pp.83-108.

26 김효진, 앞의 논문, 주8 참조.

27 趙旭鎮, 「高麗前期 太廟의 구성과 廟制의 변화」(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정학수, 「고려 개경의 범위와 공간구조」, 『역사와 현실』59 (2006), pp.159-195.

28 『高麗圖經』17, 祠宇, “其祖廟 在國東門之外 唯王初襲封 與三歲一大祭”

29 한정수, 「고려시대 개경의 사전(祀典) 정비와 제사 공간」, 『역사와 현실』60 (2006), pp.173-205.

를 요청했었는데, 성종(成宗, 981~997) 2년(983)에는 박사(博士) 임로성(壬老成)이 송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대묘당도(大廟堂圖)〉 1폭, 『대묘당기(大廟堂記)』 1권, 〈사직당도(社稷堂圖)〉 1폭, 『사직당기(社稷堂記)』 1권,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 1폭, 『제기도(祭器圖)』 1권, 『칠십이현찬기(七十二賢贊記)』 1권을 가져와 바쳤다.<sup>30</sup> 아마도 이때 들여온 새로운 예서와 관련 그림들은 고려 전기 예제 정비 과정에서 제사 의례와 제기 제작, 진설(陳設), 제주(祭酒)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송으로부터 『제기도』를 들여왔던 983년 정월의 기록을 보면 성종은 친히 원구(圓丘)에서 풍년을 기도하고 태조의 신위를 모셨으며, 또 친히 적전(籍田)을<sup>31</sup> 갈고 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후직(后稷)의 신도 거기에 함께 모셨다는 내용이 보인다. 즉, 왕이 친히 참여하는 원구제와 사직제 등이 태묘 설치 이전에 실행되었고 특히 태조의 신위를 원구에 모셨던 것이다.<sup>32</sup>

고려 성종 7년(988) 12월에 이르러 5묘(五廟) 제도를 정했고, 이듬해인 8년(989) 4월에 처음으로 태묘의 조영(造營)에 착수하여 11년(992) 12월 1일에 준공되었다.<sup>33</sup> 그리고 내린 교서를 보면 그 설립 취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가의 근본에서 종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옛부터 제왕들이 종묘를 증축하고 비궁(閟宮, 묘당)을 세워 자목부소(子穆父昭)<sup>34</sup>의 위치를 설정하여 모든 제향 의식을 행한 것이라 했다. 고려가 때에 맞게 의(義)를 들어 천운에 순응하고 왕조의 기초를 열었지만 여려 대를 거쳐 오면서도 아직 마땅한 제전(祭殿)을 갖추지 못했기에 국가를 홀륭히 다스리는 방책을 더욱 간절히 생각하여 태묘를 경영하게 된 것이다.<sup>35</sup> 그리고 조정에 있는 여러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소(昭), 목(穆)의 위치와 체제, 체협(禘祫)<sup>36</sup>의 절차를 심의 제

30 『高麗史』3, 世家 第3, 成宗 癸未 2年(983), “夏五月……甲子, 博士任老成, 至自宋獻太廟堂圖一鋪, 幷記一卷社稷堂圖一鋪, 幷記一卷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七十二賢贊記一卷”

31 고려, 조선 시대 권농(勸農)을 위해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려고 의례용(儀禮用)으로 설정한 토지.

32 『高麗史』3, 世家 第3, 成宗 癸未 2年(983), “二年, 春正月, 辛未, 王祈穀于圓丘, 配以太祖, 乙亥, 耕籍田, 祀神農, 配以后稷, 祀穀籍田之禮始此”

33 『高麗史』3, 世家 第3, 成宗 11年(992), 十二月, “大廟成……丙寅, 教曰, 王者化成天下, 學校爲先, 祖述堯舜之風, 肅修周孔之道, 設邦國憲章之制……是月, 親祀于大廟”; 그러나 『高麗史』61, 志 第15, 禮3, 諸陵에서는 성종 11년(992) 11월에 준공되었다고 하여, 태묘 준공 일자에 대한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34 종묘(태묘)에 신위를 모시는 차례.

35 『高麗史』3, 世家 第3, 成宗 11年(992), “十二月 太廟成 庚申 教曰 邦家之本宗廟爲先, 自昔帝王莫不增修太室創立閟宮, 設子穆父昭之班, 行三祫五禘之禮”; 『高麗史節要』第2卷 十二月, “大廟成, 令在朝儒臣等, 議定昭穆位次, 禔祫儀禮以聞, 下教, 立國子監, 紿田莊, 親祫于大廟”

36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음식을 바치며 복을 기원하거나 죽은이를 추모하는 의식.

정하도록 하고 12월에 처음으로 태묘에 친제를 올렸으니 유교식으로 협제(祫祭)<sup>37</sup>를 지낸 것이다. 이어 성종 12년(993)에도 교서를 통해 중국의 은(殷)나라에서 12명의 왕을 6대로 모셨던 일과 당(唐)에서 10명의 임금을 9실(室)에 배위했던 사례를 들면서 형제를 곁에 함께 모시는 것도 변법(變法)이라 하여 예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신주(神主)를 만들어 실을 정할 때 신주의 수(數)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sup>38</sup> 이는 혜종(惠宗, 943~945), 정종(定宗, 945~949), 광종(光宗, 949~975)이 태조의 자식이자 형제들이었으므로 같은 사당에 모셔 제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 유교 의례의 정착은 다음 사례들로도 알 수 있다. 국자감(國子監)에 문선 왕묘(文宣王廟)를 갖추고 석전(釋典)에 제향하도록 하였으며, 성종대에는 문치를 위해 요임금과 순임금의 충교와 주공 및 공자의 도를 이어 받아 떨칠 것을 교서를 통해 지시하기도 했다.<sup>39</sup> 이에 고려에서 왕실은 물론 사대부까지 사당을 만들어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효(孝)를 실천하는 풍습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성종은 친필로 교서를 내릴 때마다 '이풍역속(移風易俗)', 즉 예풍의 확산으로 백성들의 교화가 습속이 되게 하는 것을 책무로 여겼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sup>40</sup> 성종은 태묘의 건립과정에서 직접 건축자재를 나르기까지 하였으니 태묘(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정한 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와 정통성을 드러내는 가시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 2. 순화명 제기류의 용도와 명칭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에서는 송의 예제를 수용하여 개혁을 이끌고 유교식 예제를 중시하여 각종 제의를 시행하기 위해 중국 예서의 도식(圖式)을 수용하였다. 같은 성종의 입장은 개경 인근의 배천 원산리 요장 등지에서 왕실 태묘의 제기를 제작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sup>42</sup> 그리고 성종대 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기와 예서들을 수용하거나 재정비했다. 문종(文宗, 1046~1083) 13년

37 작고한 선왕들에게 대한 상(喪)을 마친 후 신위를 태묘에 모셔 함께 제사지내는 것을 말함.

38 『高麗史』3, 世家 第3, 成宗 12年 3月.

39 『高麗史』3, 世家 第3, 成宗 11年 12月.

40 홍선포, 「고려초기 초상화 제도의 수립」, 『美術史論壇』45 (2017), pp.20-21.

41 구산우, 「高麗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14 (2003), pp.91-148.

42 이종민,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58 (2011), pp.273-307.

(1059)에는 예부 원외랑 이정공(李靖恭)이 새로 조각한 『삼례도』 54판과 『손경자서(孫卿子書)』 92판을 바쳤는데, 왕이 조서를 내려 그것을 비서각(祕書閣)에 보관하게 하고 그에게 상으로 의복을 주었다고 한다.<sup>43</sup> 아마도 이정공이 새로 조각한 『삼례도』는 성종대에 입수했던 『삼례도』의 구본(舊本)을 저본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문종대에는 제기도감(祭器都監)을, 예종 8년(1113)에는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를 설치했다. 평장사(平章事) 최윤의(崔允儀)가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50권을 편찬하였으나 거기에도 미비한 점들이 많았으며 기타 문헌들도 거듭되는 전란으로 인하여 남아 있는 것은 십분의 1~2에 불과하여 역사기록과 『상정례(詳定禮)』를 기본으로 하고 『주관육익(周官六翼)』, 『식목편록(式目編錄)』, 『번국예의(蕃國禮儀)』 등 책들을 참작하여 의종대에 이르러 길(吉), 흥(凶), 군(軍), 빙(賓), 가(嘉)의 오례(五禮)로 분류하여 『예지(禮誌)』를 편찬했다.<sup>44</sup> 송의 예기는 12세기 이후에도 고려로 전래되었으니, 1117년 송에서 고려에 변(鑪) 12개, 두(豆) 12개, 보 4개, 궤 4개, 등(盤) 1개, 행(鉢) 2개, 정(鼎) 2개, 뢰(罍) 1개, 세(先) 1개, 준(樽) 2개 등을 보냈다는 기록에서 제기류의 명칭과 구성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sup>45</sup>

『고려사』 기록을 보면 태묘의 제사는 길례(吉禮)의 대사(大祀)에 해당한다. 왕이 직접 납시는 체협 친향(親享) 의례는 재계(齋戒,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진설(陳設, 제사나 잔치 때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위에 차려 놓는 것)→난가출궁(鑾駕出宮, 가마를 타고 궁에서 출발)→성생기(省牲器, 제사에 사용할 동물인 희생과 제사용 그릇을 왕이 친히 살피는 것)→신관(晨裸, 제사 당일 새벽에 왕이 제실에 가서 향을 피우고 신을 맞아들이는 일)→궤식(饋食, 제사때 익힌 음식을 바치는 일)→송신(送神, 제사를 마치고 신을 보내는 것)→난가환궁(鑾駕還宮, 가마를 타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것)의 순서로 진행되었다.<sup>46</sup> 이를 미루어 추정해보면 현전하는 순화명 청자 제기들의 제사용기로서의 좀 더 구체적인 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성종 당시 태묘에는 1실에 태조(太祖), 2실에 혜종(惠宗), 3실에 정종(定宗), 4실

43 『高麗史』8, 世家 第8, 文宗 己亥 13年(1059).

44 『高麗史』59, 志 第13, 吉禮 大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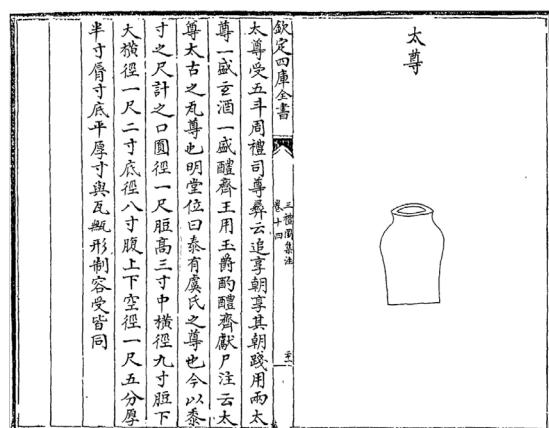
45 『宋史』1117년(政和7),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에서 변·두·보·궤의 개수로 보자면 대사(大祀)에 해당하고 종묘에 2위(位)의 신위를 진설할 때 필요한 제기의 수라고 보았다.

46 『高麗史』60, 志 第14, 禮2, 吉禮 大祀2, 太廟; 『高麗史』61, 志 第15, 禮3, 太廟; 구혜인, 위의 논문, pp.31-37.

에 광종(光宗), 5실에 경종(景宗)의 신위를 모셨다.<sup>47</sup> 그리고 현전하는 순화명 제기류는 외형상 항아리와 고배(豆) 등 두 가지인데, 명문을 통해 제사용 기물을 통칭하는 ‘향기(享器)’로 생산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화 4년명 항아리>는 전세품으로 알려져 있어 태묘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 배천 원산리요지 출토 순화명 청자 두형 제기류들은 가마터 퇴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태묘 제사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명문으로 보아 992년과 993년에 걸쳐 태묘 제 1 실, 3실, 4실 등 다른 묘실의 호수가 새겨진 제기들이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아 태묘의 준공에 맞춰 협재를 지내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설 과정에서 다수가 필요했던 두의 경우 실제 수요량보다 많게 번조했을 것이므로 그 가운데 완성품은 제작 진설에 선별되었을 것이다.<sup>48</sup>

그렇다면 순화명 청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제작된 것일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없지만 정황상 938년에 입수된 송의 『제기도』가 가장 유력하며, 특히 현재 남아 있는 유물들로 보아 그 형태는 『삼례도』의 도설 내용과 가장 유사하다. 이화여대 소장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의 경우 높이 35.6cm, 입지를 18.4~20.1cm이며 『삼례도』의 태준(太尊)과 흡사하다. 『삼례도』의 도설을 보면 저부가 평평한 태준은 5밀(斗) 용량에 구연부가 짧게 칙립했다. 또 용도에 대해서는 “추향(追享)<sup>49</sup>, 조향(朝享)<sup>50</sup>, 조천(朝踐)에 두 개의 태준을 사용한다. 하나에는 현주(玄酒)<sup>51</sup>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醴齊)<sup>52</sup>를 채운다고 했다. 태고에는 ‘와준(瓦尊)’이었다”고 했다.<sup>53</sup> 『삼례도』에서 명시한 흙으로 만들어 구운 도자 재질과 그 속성이 일치한다.<sup>54</sup> 『고려사』에서는 태준

5  
태준  
섭승의  
『삼례도집주』 권14  
문연각 『사고전서』



47 조우진, 「고려전기 태묘의 구성과 묘제(廟制) 변화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66 (2021), pp.145-177.

48 비슷한 예로 도자기로 제작되었던 조선시대 지석(誌石)의 경우도 번조과정의 실패를 우려하여 중복 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49 대체제(大禘祭)를 말함.

50 대협제(大祫祭)를 말함.

51 제사에서 술 대신 사용하는 맑은 물.

52 술을 만들고 나서 술과 찌끼가 함께 섞인 상태의 술.

53 본고의 『三禮圖』 관련 도설과 세부 설명은 文淵閣소장 『四庫全書』 온라인 SKQS 데이터베이스의 원문에 의거함.

의 용도에 대해, 태묘에서 체제와 합제에 왕이 친향하는 경우 새벽에 신이 내려오기를 비는 신관례 때 각 실의 진설에서 마루 아래(堂下) 2개를 설치하는데, 태준 2개 중 하나에는 명수(明水)를, 다른 하나에는 침제(沈齊, 청주)를 담는다고 했다.<sup>54</sup> 그러나 가을, 겨울의 시향(時享)과 납향(臘享)의 진설에서는 착준(著尊), 호준(壺尊), 산뢰(山罍)를 각각 2, 3, 4열에 배치하면서도, 신관례 때 당하에 진설했던 태준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제향의 성격에 따라 배설 기물에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조선 전기 기록을 통해 보면 유교 제례에서 사용했던 총 9종의 술과 2종의 제수(祭水)를 그 용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면 제주로는 율창주(鬱鬯酒), 오제(五齊), 삼주(三酒)와 함께 제수인 명수와 현주(玄酒)로 나눌 수 있다. 명수와 현주는 물(水)과 술(祭酒)로서 함께 진설한다. 명수는 제향할 때 진설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다섯 가지 맛의 근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로서 진설하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사용한 음복주는 제수 중 하나인 현주였다. 가공하지 않은 물을 진설하는 것은 다섯 가지 맛의 근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종묘, 사직에 제사할 때 명수와 현주를 모두 우물물로 대신하기도 한다.<sup>56</sup> 『예기(禮記)』에서는 명수와 현주가 다섯 가지 맛의 근원으로 가장 귀하며, 질박한 제물(祭物)일수록 높은 위계를 가진다고 했던 원칙과 일치한다.<sup>57</sup> 또 태준의 경우 태고로부터 그 재질은 와준이라 하여 도자 재질로 제작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어<sup>58</sup> 결국 문양과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흙으로 만든 도자제 태준은 고려에서도 태묘 제사에서 사용된 것이며, 당하에 놓여 명수나 침제를 담는데 사용되었던 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배천 원산리요지 출토 ‘고배형’ 또는 ‘두형’의 순화명 청자들은 어떤 용도였을까. 현재 남아 있는 두형기 가운데 규격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순화삼년임진 태묘제사실향기장왕공탁조’명이 있는 경우로서 높이 25.5cm, 굽지름 24.5cm, 상부 지름 25cm이며, 굽 부위만 남아 있는 경우 굽지름이 26~27cm 가량 되어 비슷한 크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의 길례대사 중 태묘의 진설 내용을 보면 “…제기 를 차림에 있어 각 자리 왼쪽에 변 2개 오른쪽에 두 2개를 놓고 조(俎) 하나는 신좌(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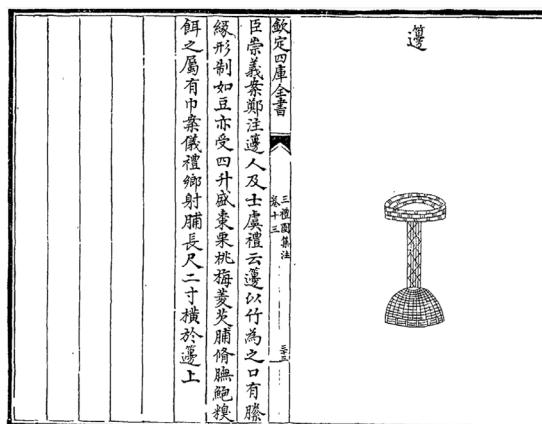
54 『高麗史』60, 志 第14, 禮2, 吉禮 大祀2, 太廟.

55 『高麗史』61, 志 第15, 禮3, 太廟.

56 『世祖實錄』5, 世祖 2年 12月 22日, “祭宗廟社稷時, 明水玄酒俱代以井水, 今考禮文, 取水於陰鑪, 取火於陽燧 火以供爨, 水以實樽, 請祀天時, 明水玄酒竝依禮文, 其陰鑪陽燧預令工曹造作 從之”

57 김우성, 「고려 전기의 예서 도입과 태묘 제례」, 『한국중세사연구』51 (2017), pp.315-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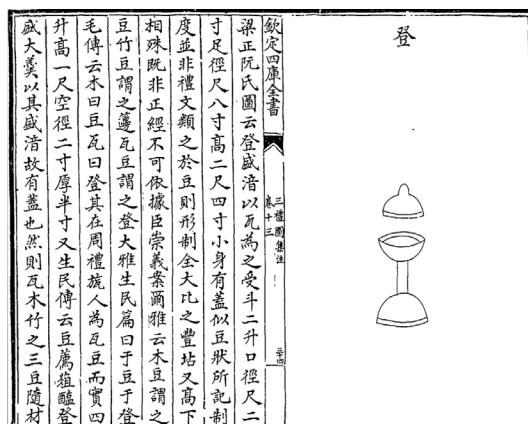
58 『新定三禮圖』, 太尊.



座) 앞에 두며 목멱(木爵) 하나를 그 다음에 두고 보  
궤 2개는 변과 두의 사이에 두는데 보는 왼쪽, 궤는  
오른쪽에 놓는다...”<sup>59</sup>고 하였다. ‘변’과 ‘두’는 숫자  
를 같게 두었는데 사실 이들 두 가지는 그 형태가  
비슷하다. 『삼례도』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목재로 만들어 칠(漆)한 목두(木豆)를 ‘두’라 하는  
데, 높이가 1척 2촌이며 소금에 절인 고기나 채소를  
담았으며<sup>60</sup>, 같은 형태이면서 재질이 대나무 등의  
초질(草質)인 죽두(竹豆)를 ‘변’이라 했는데 대추나

밤, 육포 등을 담는다고 했다.<sup>61</sup> 그리고 흙으로 제작한 와두(瓦豆)는 고기 국물을 담  
았으므로 뚜껑이 있었으며 ‘등’이라 구분했다.<sup>62</sup> 하지만 배천 원산리 출토품들 가운  
데 두와 등에 함께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뚜껑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송대에 출간된 『찬도호주주례(纂圖互注周禮)』에서도 ‘두’, ‘등’, ‘변’은 그 크  
기와 형태가 같지만 재질에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와질로 만든 것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재질에 따른 구분은 진실한 음식과 결부되어 도자나 목재에는 물  
기가 있는 것을 담고, 죽제에는 마른 음식을 담았던 것이다. 이에 그 재질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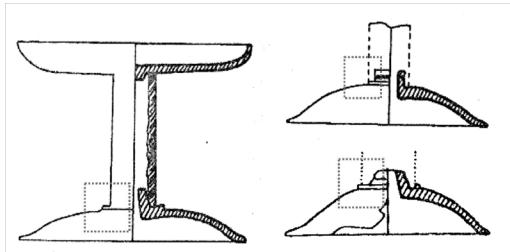


- 6  
두  
섭승의  
『삼례도집주』 권13  
문연각 『사고전서』

- 7  
변  
섭승의  
『삼례도집주』 권13  
문연각 『사고전서』

- 8  
등  
섭승의  
『삼례도집주』 권13  
문연각 『사고전서』

59 『高麗史』60, 志14, 禮2, 吉禮大祀, 太廟, “太廟令, 帥其屬設籩豆簾簋之位於神座前, 凡祭器皆藉以席  
籩豆簾簋又加盖幕, 每位籩十二在左爲二行右上, 豆十二在右爲二行左上, 簋二一在籩南一在籩豆之  
間, 簋簋各四在籩豆間簋居前簾次之…”



9  
배천 원산리 출토 청자 두형 제기들  
두형기 세부도면  
(김영진,『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 pp168-169  
참조 및 재구성)

흙으로 만든 것을 ‘등(登)’으로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sup>60</sup> 하지만 크기와 형태가 거의 비슷했으므로 『삼례도』에서 섭승의는 문자를 고증한 『이아(爾雅)』에 의거하여 목두는 ‘두’, 죽두는 ‘변’, 와두는 ‘등’이라고 정리함으로써 ‘두’가 그 형태를 지칭하는 더 광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존하는 배천 원산리 출토 청자 두형 제기들은 굽과 받침기둥, 상부를 각각 별도로 만들어 조립식으로 끼워 붙인 것을 알 수 있다.<sup>61</sup> 그리고 하단의 굽과 받침기둥을 연결하는 경계 부위를 보면 단(段)을 지어 깎은 형태를 띠고 있다. 도9 『삼례도』의 도설을 보면 같은 크기와 형태를 가진 두형기의 아래 위 원반형 부위와 중심의 받침기둥의 연결부위에 단이 지운 것은 도자제 ‘등’이 아닌 목제 ‘두’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목제 제기를 도자로 변안한 셈인데, 어쩌면 『삼례도』를 통해 구례를 따르되 그 재질은 고려가 선택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3. 인명과 요업주체

순화명 청자 제기들에서 주목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물 저부의 명문에 구체적인 인명이 새겨진 점이다. 현재 드러난 인명은 왕공탁, 심규, 심기, 이미거, 최금환, 최금만, 최길희 등 약 7명 내외이다. 992~993년에 걸쳐 제작된 고려 태묘의 제기에 향기장으로 분류되었던 이들은 누구이며 왜 기물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이 새겨진 것일까?

고려전기 광종대 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공장안(工匠案)은 성종대인 982년경에 본격 작성되었고<sup>62</sup> 대략 11세기 초 국가 지배질서가 정비된 이후에는 장인의 이름과 함께 ‘대장(大匠)’이나 ‘장(匠)’ 등 위계와 서열이 구분되는 표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고려시대 장인에 대한 지칭은 백공(百工), 공장(工匠), 공기(工技), 공인(工人), 대장, 장인(匠人) 등 다양하지만, 금속 불구류(佛具類)에 남아 있는 제작장인 관련 명문들 중에는 10세기 유물에서는 ‘장’과 같은 칭호는 발견하기 어려

60 구혜인, 앞의 논문, p.35.

61 김영진, 앞의 책(2002), p.150.

62 홍대한, 「고려시대 공장(工匠) 운영과 성격 고찰- 조탑 공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3:1 (2012), pp.213-251.

웠다.<sup>63</sup>

그런데 순화명 제기 명문에 보이는 향기장들이 모두 최(崔), 심(沈), 이(李), 왕(王)의 성씨로 표기된 점은 10세기 고려의 상황에서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고려인 아닌 도래인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개성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고려 전기부터 발달한 자기 요장의 기술적 원류, 즉 가마의 축요 방법이나 생산품의 종류와 품질 등의 원천기술이 중국 절강성 일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도래인의 가능성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경우 왕도 개경 인근의 요장들이 일반군현에 비해 천시되는 자기소(磁器所)에 편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요(私窯)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sup>64</sup>

하지만 고려전기 수공업품들 가운데 유사한 사례인 광종(光宗, 949~975) 11년 (960)의 〈청주용두사철당기(淸州龍頭寺鐵幢記)〉에서는 청주의 상급 향리층이 모두 성씨를 칭하고 있었지만, 현종(顯宗, 1009~1031) 22년(1031)의 〈정두사오층석탑 조성형지기(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를 보면 칠장(漆匠) 회문(會文)이나 유장(鎔匠) 거등달(居等達)처럼 지방사회에서는 상층에 속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이름 있는 장인들조차도 성씨를 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고려 초 금석문 자료들로 보더라도, 지방사회의 경우 성씨 사용이 중앙에 비해 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상층 관인의 경우는 광종대에 이르러 이미 성씨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럼에도 성씨 관념이 일반화되는 것은 현전하는 묘지명(墓誌銘)을 통해 11세기 후반 문종대(1046~1083)에 이르러야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sup>65</sup>

따라서 순화명 청자들에 새겨진 ‘향기장’과 직접 제작을 맡았던 도공(陶工)을 동일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명문 중의 ‘장’은 도공처럼 직접 기물 만드는 기술을 보유했던 장인일 수도 있지만<sup>66</sup> 제기의 제작과 수급 과정에서 기물제도나 그에 따른 형식을 이해하면서 감수 내지 감독했던 위치의 장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종 30년(1076)에의 제정된 작성된 각 아문(衙門) 소속 공장에 대한 별사(別賜) 관련 내용을 보면 공장은 보면 대체로 가죽, 나무, 종이 등 물질이나 옷칠, 제련, 나전 등 가공기

63 홍영의, 「고려 금속제 佛具類 銘文에 보이는 京·外 匠人の 제작활동」, 『한국중세사연구』46 (2016), pp.259-305.

64 李喜寬, 「始興芳山大窯의 生產集團과 開始時期 問題」, 『신라문화제 학술연구논문집』(2002), pp.233-277.

65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使用의 擴大와 그 背景」(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66 南秀雄, 앞의 글, p.115, (『高麗史』3 재인용).

술, 칼이나 허리띠 같은 완성품 기준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67</sup> 하지만 순화명 청자들에 보이는 ‘향기장’이라는 칭호는 재질이나 구체적 공예 기술이 기준이 아니라 용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붙여진 칭호이다. 따라서 도자제 외에 목제나 죽제 등의 제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거나 제작을 지도하는 장인이었을 것이다.

또 고려의 관인층(官人層)이 중국식 성씨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단지 제도적인 차원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장인의 이름에 중국의 대성인 죄, 王, 이, 심 등의 성씨가 사용된 것도 오히려 국내인으로서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더구나 황해도 배천군의 토성(土姓) 가운데 왕씨가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 연고 보다는 공예 기술을 가지고 내조한 도래인이나 특정한 지위가 있었던 장인 등으로 추정해왔다.<sup>68</sup> 특히 고려 초에 생겨 난 성씨들 대부분 혈연에 근거하기 보다는 개인을 수식하는 요소로 채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초 중앙 관인들의 성씨가 중국식 제도 정비에 수반된 문화적 · 행정적 격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sup>69</sup>

태묘의 제사는 목종(穆宗, 997~1009)때 태상사(太常寺)로 설치되어 왕실의 제사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여러 향관(享官, 제관)들이 진설과 왕의 행행을 담당했다. 따라서 10세기말 목종대 이후라면 제기의 향기장은 태상사의 관할 아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sup>70</sup>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1세기 이후 문종대에는 제기도감이 설치되어 태묘제사 관련 기물들을 제기도감이 감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종대 태묘의 제기 제작은 어떻게 관리되었을지 확실치 않다. 그런데 경종(景宗, 975~981) 원년 (975)에 각 직관(職官)과 산관(散官)의 품급에 따라 전시과를 제정하면서 태묘령(太廟令)을 제 10과로 배정하고 제전(田) 50결과 시(柴) 15결을 분정한 것이 보인다.<sup>71</sup> 태묘령은 친제때에 소속 인원들을 거느리고 소목의 자리를 펼치는 일과 변, 두, 보, 궤 등을 신좌 앞에 직접 진설하는 업무를 맡았던 직책이다. 게다가 태묘령 보다 높은 직위로서 제 4과에 국가 제사 업무를 맡았던 태상경(太常卿)이 배정되어 전 85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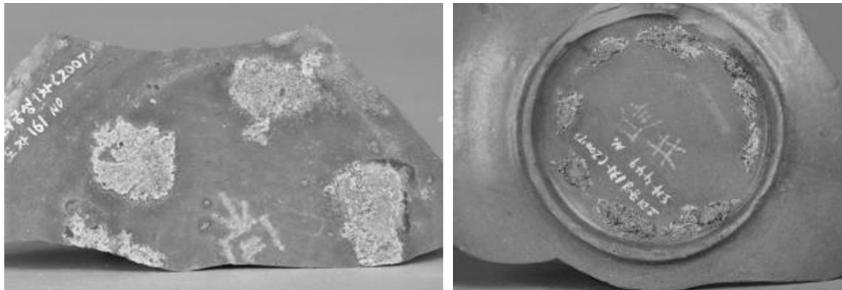
67 『高麗史』80, 志34, 食貨3, 祿俸, “諸衙門工匠別賜, 並以役三百日以上者. 文宗三十年定”

68 장남원, 앞의 논문(2004), p.98.

69 이종서, 「고려시대 성씨 확산의 동인과 성씨의 기능」, 『역사와 현실』108 (2018), pp.309-344.

70 『高麗史』60, 志14, 禮2, 吉禮大祀·太廟. 이후 국가 제사와 관련하여 문종(1046~1083)때에 제기도감(祭器都監)이 개설되었으므로, 향기장들은 11세기 중후반 이후 제기도감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1 『高麗史』78, 志32, 食貨1.



10  
개성 고려 궁성출토  
명문청자  
문화재연구소 발굴

시 55결을 분정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sup>72</sup> 그렇다면 992~993년 당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태상시가 설치되기 이전이었지만 순화명 제기의 제작에 연관되는 향기장은 태상령-태묘령으로 연계 된 직제 아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현전하는 순화명 제기들 가운데 정확하게 묘호가 분별되는 사례가 적어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1개 묘실에 진설되는 제기의 개수로 보아 두형기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sup>73</sup> 따라서 가마터에 남아 있는 순화명 제기 역시 두형기의 숫자가 다수이며, 성종대에 태묘 제 5실까지 제향을 올렸다면 각 실별로 소요되는 제기들은 묘실별 제기 제작 담당자에 의해 책임지워졌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성씨와 이름을 가진 '향기장'들이 감수와 감독을 통해 청자제기 생산에 관여했다면, 배천 원산리는 어떤 성격의 요장이었을까? 이와 연관지어 유추할 만한 자료로는 개성의 만월대 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전기 청자류들이다. 궁궐내 건물지들에서는 제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순화명 제기류가 제작되었던 원산리나 방산동, 혹은 원흥동이나 부곡리 등지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의 초기 청자 생활기명들이 여러점 수습되었다. 배천 원산리에서도 순화명 청자 제기들외에 일반기물의 경우는 전축요 운영시기에 나타나는 옥환저 완과 다리굽 접시, 화형접시, 평저(平底)발, 완 등 고운 백색내화토를 여러 군데 받쳐구운 것들로서 전형적인 공통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 청자들 가운데 발이나 접시류의 굽 안바닥에는 완성품 위에 정(釘)과 같은 도구로 점각(點刻)한 명문들이 남아 있다. 점각 명문의 종류로는 '상(尙)', '정(井)', '상정(尙井)', '진정(進井)' 등이 있는데,<sup>74</sup> 특히 '상'자는 3개의 파편에서 단독으로, 1개에서는 '상정'으로 보인다. '상'의 한자 부수에 해당하는 글자 윗부분의 '소(小)'자

72 『高麗史』61, 志15, 禮3, 太廟, 太廟四孟月及贍親享儀.

73 구혜인, 앞의 논문, 주45 참조.

획이 아래에 비해 크게 써어 있는 점이 4점 모두에서 보이는 동일한 특징이다. ‘상’은 아마도 왕궁에서 도자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했던 관청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구로는 상식국(尙食局)<sup>74</sup>, 상약국(尙藥局)<sup>75</sup>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명문들은 지금까지 주로 고려중기 이후 요장이나 유물에서 확인되었으나, 초기청자 유물에 새겨진 사례는 처음이었다.<sup>76</sup>

그밖에 ‘현(玄)’, ‘현상(玄尙)’과 ‘공(供)’, ‘공상(供上)’, ‘공○(供○)’, ‘죽(竹)’, ‘신(辛斤)’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 ‘공’이나 ‘공상’에 대해서 어용(御用)보다는 궐내의 관청명이나 용도 등을 표기한 것으로서 명문을 점각한 곳이 생산지인지 사용처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가마터나 출수품(出水品) 중에서 이러한 명문이 확인된 바 없고 점각으로 새겼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새겨진 것으로 보아 공납(貢納)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이해된다.<sup>77</sup> 『고려사』 내용으로 보면 공상에 관한 언급이 주로 고려후기 이후에 자주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각 지역에서 토지분급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물자나, 특별히 왕실제사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바치는 일에 관한 것이다.<sup>78</sup> 만월대 여러 곳에서 발견된 초기청자 점각명 자기들의 품질이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용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포개구이를 한 기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초벌구이를 하지 않았던 고려 전기의 요업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왕실 공상과 무관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고려 전기 청자들의 생산지가 대부분 개경 인근이었으므로 설사 공상이 이루어졌더라도 해운(海運)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배천 원산리 요장을 비롯하여 시흥이나 용인등지에서 제기를 생산했던 가마의 운영주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왕궁터에서 발견되는 관청명과 공상명이 있는 고려 전기 도자기들을 생산한 요장의 성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어떤 문헌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려진바 고려에서는 일부 수공업 제품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수 행정구역인 소(所)를 설치했고, 10세기를 전후한 수공업 제도의 정비과정 속에서 요업도 일정한 생산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본

<sup>74</sup> 고려시대 왕의 식사를 담당하던 기구로 고려 목종(997~1009)대에 설치되어 1308년 충선왕 때 관제 개편으로 사선서로 바뀔 때까지 지속.

<sup>75</sup> 상식국과 마찬가지로 고려 목종대에 설치되어 1310년 충선왕 2년에 장의서(掌醫署)로 개칭.

<sup>76</sup> 장남원, 앞의 책, 주9 참조.

<sup>77</sup> 박지영, 앞의 논문(2020), 주9 참조.

<sup>78</sup> 『高麗史』78, 志 第32 食貨 1 田制, 祿科田.

다. 특히 태조 아래 광종, 성종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과 각 지역에 대한 호적(籍)의 작성과 더불어 공장안도 정리되었으므로 수공업자들에 대한 신분적, 기술적 수취도 강화되었을 것으로 본다.<sup>79</sup> 이런 관점에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요지의 순화명 제기나 시흥 방산동 및 용인 서리 일대의 도자제기 생산을 보면 고려 초부터 도자기의 제작이 공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세기 전반 아래 청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했던 이유도 왕실과 관부, 개경과 남경, 그리고 경기일대 지배층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경을 중심으로 일제히 나타나는 대규모 초기청자 요장들의 운영과 기술적, 조형적 수준의 유지는 왕실이나 관청의 제기, 왕궁의 소모품 등으로 수요되는 도자기의 수급은 생산·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특히 배천 원산리 요지의 제기들이 10세기 말 전축요 단계의 조업시기에 제작된 것이었다면 시흥 방산동이나 용인 서리는 모두 전축요 단계부터 토축요 단계까지 장시간 요업이 지속되었지만 제기류들은 한국식 해무리굽이 제작되는 마지막 층위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따라서 배천 원산리 가마가 시흥 방산동이나 용인서리 가마들보다 운영기간이 짧았음을 알 수 있고, 보다 밀접하게 왕실이나 중앙 관부와의 연관성 위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IV. 맷음말

지금까지 일련의 순화명 청자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점의 전세품을 제외하면 모두 개경 인근 배천 원산리에서 제작된 것이다. 기종과 형식은 역대 의례서에 수록되었던 기물들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특히 송대 섭승의가 편찬했던 『삼례도』의 기물형식과 가장 비슷했다. 이에 따르면 순화명 청자들은 각각 태준과 두형 제기들이었다. 문양이 없고 질박한 제기들은 격이 높은 제사의 기물로서 인식되었고, 특히 태준은 왕의 체협 친제에서만 2점씩 진설되면서 각각 명수와 침제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두형 제기들은 그 재질이 목재일 경우 ‘두’, 죽제일 경우

79 장남원, 앞의 논문(2008), 주20 참조.

‘변’, 흙으로 만든 것일 경우 ‘등’으로 명시되고 있었다. 재질에 따라 담기는 음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 크기와 형식은 같아, 명칭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한편 순화명 청자 제기에는 최, 심, 이, 왕 등 4개의 서로 다른 중국식 대성(大姓)을 가진 향기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10세기 당시 고려에서 칭성(稱姓)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태묘 제기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제기들이 생산되었던 황해도 배천 원산리 요장 외에도 개경 주변에서 비슷한 청자를 제작했던 경기 일원의 시흥 방산동이나 용인 서리 가마들 역시 시간적으로 늦지만 격식에 따른 도자 제기들을 적지 않게 제작하고 있어, 수공업 생산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왕실이나 관부의 도자기를 조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았을 것임을 추론해 보았다.

12세기 초 북송 황제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徐兢)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동이(東夷)는 그릇에 적대를 쓴다고 했는데, 고려의 토속이 여전히 그러하다. 만둣새를 보면 예사스럽게 소박함이 자못 사랑스럽고, 다른 식기들도 왕왕 준(尊)·이(彝)·보, 궤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연음(燕飲) 때의 시설도 완침(莞蕈)이나 궤석(几席)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이는 대체로 기자(箕子)의 아름다운 교화에 물들어서 삼대(三代)의 유풍을 방불한 것으로…”라 하였다. 이는 아마도 북송 사신이 보았던 12세기 고려가 중국 고대 예기와 제도를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80</sup>

이 같은 변화의 기점에 성종이 있었고, 시무 28조의 수용과 실행을 통해 고려 국가의 유교적 기틀을 마련하면서 행정제도와 질서를 굳건하게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행위는 바로 태묘의 건립이었으며, 이에 소, 목의 위치와 체제, 체협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절차에 따른 설행의 법도가 짜여졌다. 체협은 왕실의 존엄을 상징하는 제사이자 국왕이 자신과 왕실 조상과의 관계와 유대를 확인하는 의례이기도 했다. 제사에서 태조를 중심으로 신위를 배열함으로써 왕통의 계보와 역대 정치권력을 가시화하고자 했다. 친향을 마친 뒤에 국왕은 신하와 백성에게 사면을 내리고 은전을 베

80 정남원, 「『高麗圖經』의 ‘定器制度’와 청자」, 『한국중세사연구』55 (2018), pp.175~201. 하지만 12세기 북송 말부터 새로운 예서들을 기준으로 제기를 교체하기 시작했고, 남송대 이후로는 주희(朱熹, 1130~1200)의 석전의(釋奠儀)가 강조되면서 상주(商州)시대 동기(銅器)로 복고(復古)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오래동안 견지해왔던 『삼례도』 계통의 제기들이 방기(放棄)되었고 형태는 물론 재질에서도 복고 풍의 금속기 비중이 높아졌다. 陳芳妹, 『青銅器與宋代文化史』(台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6), pp.191~255.

풀었으니 군신의 위계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계기였다.<sup>81</sup> 그리고 바로 그 가시적 공간에서 드러나는 시각적 요소는 태묘에서 행하는 일련의 절차와 격식에 맞는 다양한 기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이를 위해 10세기 후반 송으로부 들여 온 『제기도』등을 참고하여 제기를 준비한 것이며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순화명 청자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Keyword

순화명 청자 celadon with the reign title Sunhwa(淳化), 태준(太尊) Tae Jun, 두(豆) Du, 등(登) Deung, 태묘(太廟) shrine for royal ancestral rites, 친제(親祭) the king's own ancestral rites 삼례도(三禮圖) the three ritual classics, Illustrated, 배천 원산리 가마터 Baecheon Wonsan-ri kiln site

투고일 2021년 9월 27일 | 심사일 2021년 10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17일

---

81 金 아네스, 「고려 전기 태묘의 補祿 親享과 그 의미」, 『진단학보』132 (2019), pp.21-56.

## 참고문헌

### 사료

- 『宋史 Songsa』  
『三禮圖 The Three Ritual Classics, Illustrated』  
『新定三禮圖 The Three new ritual classics, Illustrated』  
『高麗史 Goryeosa』  
『宣和奉使高麗圖經 Xuanhwafengshi Gaolitujing』  
『世祖實錄 Sejosillok』

### 논문

- 구산우 Koo, Sanwoo,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The Character and Movement of the Political Powers under Seongjong in Goryeo」, 『한국중세사연구 The Korean Mediaeval History Society』14, 2003, pp.91-148.
- 구혜인 Koo, Haein,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A Study of Royal Court Ritual Vessels of the Joseon Period」,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h.D., Department of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8.
- 김아네스 Kim, Agnes, 「고려 전기 태묘의 褒祿 親享과 그 의미 The Significance of Che and Hyeop Ancestral Rituals Hosted by a King at Temple of the Royal Ancestors in the Early Goryeo」, 『진단학보 The Chin-Tan Society』132, 2019, pp.21-56.
- 김우성 Kim, Woosung, 「고려 전기의 예서 도입과 태묘 제례 Teamyo Rites and Introduction of National Rituals Book in Early Goryeo Dynasty」, 『한국중세사연구 The Korean Mediaeval History Society』51, 2017, pp.315-352.
- 김효진 Kim, Hyojin,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s Discovered at Sangban Kiln Site and Their Date of Creation」,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82, 2014, pp.5-33.
- 박정민 Park, Jungmin, 「고려 초기청자(初期青瓷) 연구에 있어서 북한자료의 활용과 전망 The Application and Prospect for North Korean Research Materials in a Research of Goryeo's First Step Celadon(初期青瓷)」, 『인문과학연구논총 The Journal of Humanities』38, 2017, pp.227-256.
- 박지영 Park, Jiyoung,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호 청자 고찰 A Study on Inscribed Celadons Excavated from the Goryeo Palace Site」, 『문화재 MUNHWAJAE』52, 2019, pp.122-141.
- 장남원 Jang, Namwon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Trends of Ceramic Industry in the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Goryeo Period」, 『고문화 KOMUNHWA』63, 2004, pp.83-108.
- 장남원 Jang, Namwon, 「『高麗圖經』의 '定器制度'와 청자 The Phrase 'Dingqi zhidu (定器制度)'」

Mentioned in 'Gaolitujing (高麗圖經)', 『한국중세사연구 The Korean Mediaeval History Society』55, 2018, pp.175-201.

정학수 Jeong, Haksu, 「고려 개경의 범위와 공간구조 The Range of the Gaegyeong Capital City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City's Inner Structure」, 『역사와 현실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59, 2006, pp.159-195.

조옥진 Cho, wooljin, 「고려전기 태묘의 구성과 묘제(廟制) 변화의 의미 The Constitution of Shrine and the Meaning of the Change in the Shrine System on the Early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한국중세사연구 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66, 2021, pp.145-177.

이종민 Lee, Jongmin, 「韓國 初期青磁의 形成과 傳播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Early Korean Celadons」,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40, 2003, pp.51-75.

이종민 Lee, Jongmin,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A Study of Movement Process for Central District of Celadon Production in Early Goryeo Period」, 『역사와 담론 History and Discourse』58, 2011, pp.273-307.

이종서 Lee, Jongseo, 「고려시대 성씨 확산의 동인과 성씨의 기능 What Prompted the Spread of Surnames in Goryeo, and What was Their Functions」, 『역사와 현실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108, 2018, pp.309-344.

이희관 Lee, Heegwan, 「韓國 初期青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esearch on the Korean Early Celadon」, 『지방사와 지방문화 Local History and Culture』14, 2011, pp.7-51.

한정수 Han, Jungsoo, 「10~12세기 초 국제 질서와 고려의 年號紀年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10th to Early 12th-Century Period and the Era-Name Calendar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한국중세사연구 The Korean Mediaeval History Society』49, 2017, pp.109-144.

한정수 Han, Jungsoo, 「고려시대 개경의 사전(祀典) 정비와 제사 공간 Consolidation of the Ritual Codes(祀典) and the Establishment of Spaces Needed for Memorial Services in the Gaegyeong Capital Area,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역사와 현실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60, 2006, pp.173-205.

홍선표 Hong, Sunpyo, 「고려초기 초상화 제도의 수립 The Establishment of Portraiture in Early Goryeo Dynasty」, 『美術史論壇 Art History Forum』45, 2017, pp.20-21.

홍영의 Hong, Youngeui, 「고려시대 금속제 기물 및 기와의 '연호'명 검토: 대중국 '연호'의 시행과 고려의 다원적 국제관계 Review Inscription of 'Era Name' of Metalcrafts Object and Roof Tiles in Goryeo Dynasty: Goryeo Period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ra Name on the Chinse」, 『한국중세사연구 Korean Mediaeval History Society』50, 2017, pp.225-281.

##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Celadon Ritual Vessels with the Inscription ‘Sunhwa(淳化)’ in the Early Goryeo Dynasty

Jang, Namw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celadon ritual vessels engraved with the word ‘Sunhwa(淳化)’, made between 992 and 993 of King Seongjong’s reign in Goryeo. All these celadons were used for ritual use. One of them is a *Tae Jun*(太尊) and is in the collection of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and the remaining fragments are *Du*(豆), made at the Baecheon Wonsan-ri kiln site, near Gaegyeong. And the fact that these celadon were produced in a workshop near Gaeseong shows the possibility that celadon production was carried out under a public system around the 10th century. The type and form of these celadon ritual vessels are generally similar to those recorded in the previous rites, but in particular, they were most similar to those of *『Samryedo(三禮圖)』* compiled by *Seopsungui*(肅崇義) of the Song dynasty.

On the celadon ritual vessels with the inscription ‘Sunhwa’, the names of the artisans (or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the vessels are also engraved. Since the end of the 10th century was before it became common to attach a surname to a person’s name in Goryeo, the fact that such a name was engraved on the vessel for ancestral rites proves how important the establishment of Taemyo and the rites were.

King Seongjong(成宗) of Goryeo established the Confucian foundation of the Goryeo state and strengthened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order. Among them, the most symbolic ac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Taemyo*(太廟), and the preparation of the ancestral ritual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procedure were planned. It symbolized the dignity of the royal family for the king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ancestral rites, and it was also for the king to show the relationship and bond between himself and the royal ancestors to the people. And by arranging the gods around Taejo in the ancestral rites of *Taemyo*, it was intended to visualize the lineage of the royal family and the successive political powers. And the celadon ritual vessels engraved with the word ‘Sunhwa’ were the most concrete examples of the purpose of King Seongjong.

